

소설가 남편은 검은 책방 주인 詩 좋아하는 아내는 흰 책방 주인

광주 서석동 시·소설 전문서점 '검은 책방 흰 책방'

음식점 2층 소박한 20평 규모 서점
시·소설 컬렉션에 귀농·목공예 책 갖춰

내달 9일 이제시 시인 초청 두번째 낭독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읽기 모임 시작



'검은 책방 흰 책방' 주인이 제작해 판매하는 책꽂이는 인기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 책을 볼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



광주에 시와 소설 전문 서점이 문을 열었다. '검은 책방 흰 책방'이다. 서점은 소설가 남편과 시를 좋아하는 아내가 함께 운영한다.

처음 서점 이름을 들었을 때 '검은 색 글씨와 흰 종이'에서 따 온 이름인가 싶었다. 서점 주인 이은경씨에게 물었더니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남편인 김종호 작가 작품 중 '검은 소설이 보낸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웬지 검은 것은 소설, 흰 것은 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 서점 이름으로 정했다. 남편은 검은 책방, 아내는 흰 책방 주인인 셈이다.

지난 7월 전남대 병원에서 조선대학교 방면 일방로 음식점 2층에 문을 연 서점은 소박하다. 서점 바닥은 검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바둑판 모양. 꼭 책방 이름에 맞춰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예전 가게 주인의 숨겨졌다.

'문예중앙' 신인상을 통해 등단한 김작가는 문학과 지성사에서 '인어공주 이야기' 등을 펴냈다.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한유주, 김용태 등과 함께 '문학동인 루' 멤버로도 활동중이다.

대구와 서울 등에서 살아온 두 사람은 현재 나주에 거주하고 있다.

"시골에서 살고 싶은 건 우리 부부가 오래전부터 늘 꿈꾸던 거였죠. 하지만 바로 귀농하기는 어려워 혁신도시로 내려왔습니다. 마침 남편 직장도 이곳으로 옮겨왔구요. 원래 책 읽는 거 좋아하고 해서 별 욕심 없이 작은 책방을 냈어요."(이은경)

쉬는 날 없이 운영되는 서점은 주중에는 아내가, 주말에는 남편이 담당한다.

"작은 서점의 장점은 컬렉션이다. 소설가가 운영하는 전문 서점이니 무엇보다 소설 컬렉션에 눈길이 갔다. 한강의 작품 등 요즘 인기 많은 책과 함께 놓여 있는 파스칼 키냐르 소설과 다자이 오사무 전집, 이인성과 박상룡의 책에선 주인의 취향이 묻어난다. 보르헤스가 직접 뽑은 문학선집 '보르헤스 세계문학 컬렉션 바벨의 도서관'도 눈에 띈다.

서가엔 문학과 지성사 시인선, 창비 시선 등 다양한 시집도 꽂혀있다. 새 책을 주로 판

매하지만 현재도 비치해뒀다. 집에 두고 읽던 문학이론 책들과 귀농, 목공 관련 책들이 많다. 옛날 시집 중에는 지금은 절판된 게 많아 탐내는 이들도 있다. '거대한 뿌리' 초판본 등 오래된 김수영의 책들도 한곳을 차지하고 있다.

서점에서 인상적인 곳은 신발을 벗고 올라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다. 책에 빠져 들었던 어릴 적 생각하며 누구든, 맘 편하게 책을 읽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 만들었다. 인천에서 텃밭, 도시 농업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던 이씨는 목공예에도 일가견이 있다. 직접 만든 책상 등이 곳곳에 놓여 있고 책꽂이 등은 판매도 한다.

책방에선 낭독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2일 '루' 동인 이준규 시인의 시낭송회가 첫 이벤트였다. 오는 10월 9일(오후 6시)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의 이제시 시인과 김종호 작가가 함께 하는 두번째 낭독회 '다리를 절룩거리러는 밤의 침묵'도 준비중이다. 참가비 1만원(음료 포함).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도 생겼다. 조선대학교 문창과 학생들의 방문이 잦고, 책 좋아하는 이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단골 손님 제안으로 몇몇이 모여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함께 읽고 있다. 수요일 오전엔 '예술론'을 읽는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오전 김씨가 소설 창작 강좌도 진행할 예정이다.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할 하는 게 즐거워요. 요즘 시가 읽힌다고 하는데 시집을 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형 서점이 아니고는 시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드물잖아요. 누구 시집을 찾거나 구매하고 싶다고 하면 "아, 시가 다시 오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요."

서점은 낮12시부터 밤 9시까지 쉬는 날 없이 문을 연다. 집에서 이씨가 직접 만든 매실차와 커피도 판매한다. 문의 010-7608-989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류현자 개인전 27일~10월 9일 양림미술관



▶'사모곡'

버선과 연꽃을 소재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류현자 작가가 양림미술관에서 27일~10월9일까지 12번째 개인전을 연다.

작가는 한지에 버선과 연꽃을 담은 '사모곡' 시리즈를 발표한다. 작품 속 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꽃을 피우는 모습을 통해 힘든 세상 속에서 온몸으로 가족을 지켜내는 어머니 사랑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지를 물에 풀어 덧 붙이거나 조개가루를 두껍게 발라 반부조 형식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겨울 물 두었던 금강경 사경(불교경전을 베껴 쓰는 일) 200여점에 그리며 어머니에 대한

애틀한 마음을 더했다.

또한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등 오방색을 주로 사용하며 회생을 통한 생명의 총만함을 표현했다. 푸른색 바탕에 하얀 연꽃을 피워내고 알록달록 버선으로 주변을 장식해 작가 특유 조형미를 선보인다.

류씨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경희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남대·광주대·조선이공대 외래교수, 한국·광주·전남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개인전 12회, 단체전 200여회에 참여했고 현재 예빈지, 전통과형상회, www.현대미술가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675-7009. /김용희기자 kimyh@

'강봉규 사진연구회' 회원전

10월 9일까지 미봉갤러리

강봉규 사진작가 제자들로 구성된 강봉규 사진연구회 14기 회원들이 미봉갤러리(동구 장동)에서 10월9일까지 회원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광현중 회장을 비롯해 김회정, 김영숙, 박미령, 이영숙 등 5명이 참여해 올해 촬영한 신작 20여점을 선보인다. 강봉규 작가도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육지도', '미학', '새생명' 등을 찬조 출품했다.

곽 회장은 천진난만한 시각을 보여준다. 선암사 개울에 놓은 동그런 돌멩이를 찍어놓고 '거북이'라고 이름붙였다. 김회정 회원이 화순 동북에서 촬영한 '전진'은 물이끼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순간을 포착했다. 김영숙 회원은 강천사 폭포를 친근하게 바라본 '풍요'를 출품했다.

그밖에 박미령 회원은 선운사 연못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찍은 '속삭



광현중 작 '거북이'

임'을, 이영숙 회원은 나무줄기 사이에 자리잡은 꽃을 앵글에 담은 '의지'를 전시한다. 문의 062-384-145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순나조각

양근로전시회

- 400여점 전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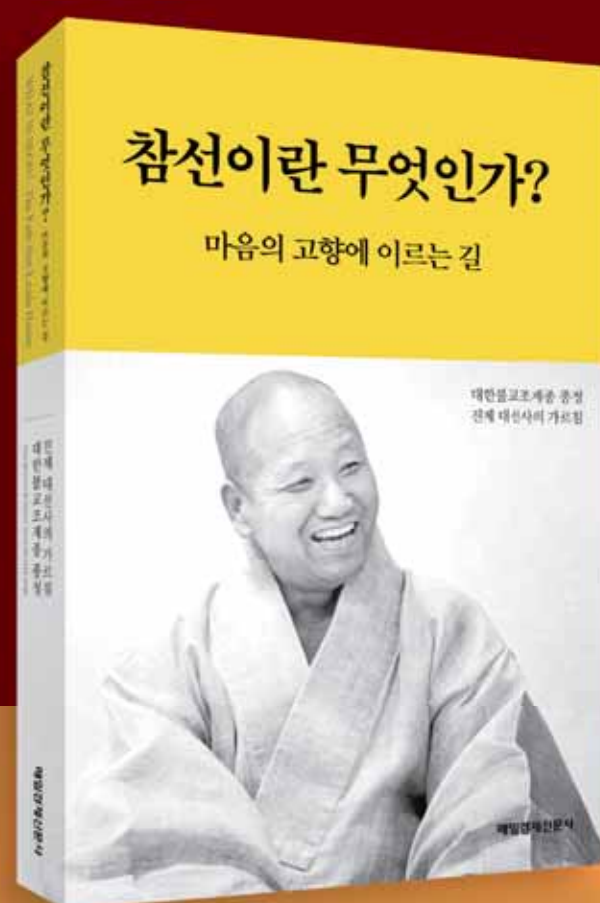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대선사가 한글과 영문으로 전하는 삶의 지혜와 참된 행복의 메시지

“사람들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요,
말이 여위면 털이 깊이로다.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한다면,
모든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밝히는 참선수행을 합시다.”

“이 책은 오늘 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소중한 양식을 부담 없이 얻을 양서라 아니 할 수 없다.”

-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진제대선사는 항곡대선사로부터 부처님법을 인가받아 경허-해월-운봉-항곡대선사로 전해 내려온 정통법맥을 이음, 석가여래부촉법 제79대법존, 현재)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지음 | 진제 대선사 | 가격 | 16,000원 | 팔공총림 동화사 | 053)980-7903 | 해운정사 | 051)746-2256